

금융권, 유리천장 깨졌다... 수출입銀도 첫 여성본부장

1960년대생 1980년대 입사 '공통점'

김경자 수출입은행 심사평가단장
중소금융·해외사업 전문가 인정

박정림 KB증권 대표
폭넓은 업무경험·실행역량 보유



김경자
수출입은행 본부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조순옥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이경희
은행연합회 상무

금융권 유리천장이 깨지고 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여성들이 임원으로 대거 이름을 올렸다. 1960년대에 태어나 남녀차별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1980년대에 입사한 이들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김경자 심사평가단장이 중소중견기업금융본부장에 승진 임명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76년 수은 창립 이래 여성이 본부장에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63년생인 김 본부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은에서 심사평가단장과 수원지점장, 미래산업금융부장, 글로벌협력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금융 및 해외사업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금융지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공개모집 과정을 통해 후보자를 모집한 후 투명하고 공정한 선

임과정을 거쳐 김 본부장이 임명됐다”며 “앞으로도 전문성, 윤리성, 리더십, 소통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를 남녀 차별없이 발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다. 1963년생으로 2004년에 KB국민은행에 합류한 박 대표는 KB금융그룹에서 자산관리(WM)부문 시너지영업을 진두

지휘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됐다.

KB금융 측은 “박 대표는 WM·리스크·여신 등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M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공고화 등 수익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 역시 이번 인사에서 여성을 경영진에 전진 배치했다.

신규 선임된 왕미화 WM사업부문장은 1964년생으로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와 1985년에 입행했다. 조경선 신한은행 부행장보는 1965년생으로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와 1983년에 신한은행에 들어왔다.

신한금융은 “신임된 여성 경영진은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담당 업무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신한

금융은 올해부터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의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신한 쉬어모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해당 프로그램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준법감시인으로는 처음으로 여성인 조순옥 상무를 등용했다. 능력 있는 여성 임원을 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정종숙 WM그룹 부행장보가 상무 1년 차에 승진 발탁됐다. 이번에 신규 선임된 6명의 부행장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은행연합회 역시 지난해 말 승진인사에서 여성 임원이 배출됐다. 이경희 상무 이사가 주인공이다. 지난 2015년 김혜경 상무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임원이다. 이 상무는 1964년생으로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와 1986년에 은행연합회에 입회했다.

/안상미 기자 smah1@metroseoul.co.kr



한국방송회관(양천구 소재)에서 MBC 최승호 사장, KBS 양승동 사장,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SBS 박정훈 사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텔레콤

OTT확대 나서는 이통사 지상파 손잡고 토종 출시

관련제도 정비로 방송규제 벗어나

이동통신사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대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의 특성 중 대용량을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특성을 살려 모바일 기기에도 초고화질의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5G 서비스 중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도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해소 등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새해를 맞아 박정호 사장을 필두로 OTT 서비스 확대에 가장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상파와 손을 잡고 토종 연합 OTT를 출범한 것이 대표적인 시도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OTT 제휴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이 케이블TV 유료방송사 인수나 콘텐츠 투자로 범위를 확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통합 OTT 발표는 우수한 K 콘텐츠에 자원을 유치해 미디어 산업을 상승 사이클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또한 자사 인터넷TV(IP TV) 콘텐츠 강화 차원에서 최근 글로벌 콘텐츠 공동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신사 중 단독으로 추진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IPTV 이용자는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연내 케이블TV 사업자 인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T 또한 자회사를 통해 케이블TV 인수를 추진하는 등 미디어 사업 확장에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문제는 사업자들은 빠르게 OTT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정호 사장은 토종 통합 OTT가 성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레이팅’을 꼽았다. 박 사장은 “제로레이팅을 띄워주면 통합 OTT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자사 콘텐츠를 이용할 때 소비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내주는 서비스다. SK텔레콤은 한때 돌풍을 일으킨 증강현실(AR) ‘포켓몬 고’를 이용할 때 소요되는 데이터 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다만 제로레이팅은 인터넷 이용 시 누구도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망 중립성과 연계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제로레이팅을 사전 규제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없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은 제로레이팅에 대해 사후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OTT 또한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 방송법이 적용되는 지상파·케이블방송과 다르게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방송법은 OTT 역시 규제체제로 편입을 추진하지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옥수수, 폭TV 등 국내 OTT는 ‘등록’, 주문형비디오(VOD)만 제공하는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신고’로 분류돼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OTT 시장이 확대되고 글로벌 콘텐츠 장악력이 커지는 시점에 토종 미디어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또한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조정을 맞춰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롯데, 파트너사 납품대금 8000억 조기지급

설 앞두고 자금운용 도움주기 일환
2만여개 중소 파트너사 혜택 갈 듯

롯데는 설 명절을 앞두고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명절의 경우, 파트너사들이 급여 및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다양한 곳에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기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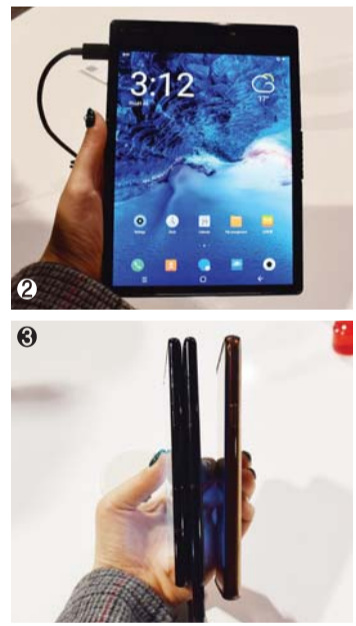
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e커머스 등 34개사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약 2만개의 중소 파트너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기 지급은 1월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연휴 3일 전인 1월 30일까지 모든 지급이 완료된다. 이는 평상시 대비 평균 약 11일 앞당겨서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롯데는 중소 파트너사 상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생펀드를 752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롯데 상생펀드는 롯데 출원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상생프로그램이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사의 원활한 신용대금 결제를 돕는 ‘상생결제제도’를 전 계열사에 도입 중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① 로울의 폴더블 폰 플렉스파이. ② 플렉스파이를 펼 때 모습. ③ 플렉스파이의 옆모습(왼쪽)과 삼성 갤럭시S9 비교.

플렉스파이, 화면 펴는것만으로 ‘편리’

>> 1면 ‘세계 첫 폴더블폰...’서 계속

태블릿에서 화면을 접을 때는 바로 스마트폰 화면으로 전환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펼 때도 마찬가지다. 전체 태블릿 화면을 보기 위해서 화면이 전환되는 모습을 보며 기다렸다.

태블릿 모습일 때의 뒷모습을 살펴봤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접히는 부분은 고무재질이다.

무겁고 세련된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제품임은 확실하다고 느꼈다.

다른 기기 없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펴는 것만으로 영상 시청과 게임 등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옆에서 지켜보던 로울 관계자는 “화면을 수없이 접었다 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로울의 혁신적인 제품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플렉스파이는 작년 10월 6GB, 8GB 램 버전과 128GB, 256GB, 512GB 저장용량으로 나눠 출시됐으며 가격은 8999위안(약 141만원)부터 시작한다.

/리사베이거스(미국)·쿠서윤 기자 yuni2514@

美 특허군 출원 6.1만명 삼성전자, 압도적 1위 SAMSUNG

삼성전자가 지난 해 미국에서 특허를 2번째로 많이 취득한 기업으로 확인됐다. ‘특허군’에서는 압도적인 1위였다.

10일 미국 ifi클레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8년 미국에서 특허 5850건을 출원했다. 전년(583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 IBM에 이은 두번째다. IBM은 올해 9100건 특허를 출원해 지난 해(9043건)에 이어 1위를 지켜냈다.

단, 삼성전자 역시 3위 이하 업체들과 큰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3위인 캐논은 3056건, 4위인 인텔도 2735건에 불과했다.

특히 ‘특허군 출원 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총 6만1608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여러국가에서 중복으로 출원한 특허 건수로 삼성전자는 6만1608명에 달했다. 일본 캐논(3만3905건)과 비교해 2배에 달한다. IBM도 특허군 출원에서는 3만4376건에 불과했다.

그 밖에 20위권 안에는 LG전자(2474건, 5위), 삼성디스플레이(1948건, 14위), 현대자동차(1369건, 19위)가 있었다.

전년비 특허 출원수 증가율로는 중국 BOE가 16%로 가장 높았고, 화웨이와 포드 글로벌 테크놀로지(14%)가 뒤를 이었다. 현대자동차(5%)와 아마존(4%)도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김재용 기자 juk@